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탄 대축일

제34권 4호 별지(다해) 2012.12.25

2012년 성탄 메시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혼란과 어둠 속에서 손뼉아 기다리던 말씀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성탄 대축일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복된 동포들에게도 주님 성탄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하느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는 놀라운 신비를 알려줍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필리 2,7 참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세상의 고통과 비애를 차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인간의 비참을 몸소 함께 나누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성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극복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모상으로 빚어진 인간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귀한 것이며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허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말씀으로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고,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 (로마 1,17)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생활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현장 21항)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 2,17)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구세주는 우리 안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선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성탄의 정신을 깊이 깨달아 국민과의 약속을 그대로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관용과 화해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간과 생명 중심의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 그 생명의 빛이 우리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2년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HAPPY MERRY Christmas !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대축일 밤미사

(12월24일, 밤 9시)

구 유 예 절

시작 전 해설

말씀 봉독 : 이사야 예언서 55,1-13

입당 전 해설

시작성가 : 전례성가 p 144(이사야 말씀하신...)

아기 예수 입당 행렬

아기 예수 구유에 모심과 구유축복

- 촛불점화 - 성수 - 분 향

아기 예수 경배와 구유예물 봉헌

미 사

제1독서 이사야서 9,1-6

화답송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제2독서 티토서 2,11-14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 음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밤미사 성가

입 단 : 144
봉 헌 : 146, 143
영 성 체 : 135, 139
퇴 장 : 142

성탄대축일 낮미사

(12월25일, 오전 11시)

온 세상이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사신

강생의 신비의 참 뜻을 새깁시다.

제1독서 이사야서 52,7-10

화답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집안

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제2독서 히브리서 1,1-6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큰 빛이 땅위에 내린다.○

복 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낮미사 성가

입 단 : 142
봉 헌 : 141, 138
영 성 체 : 148, 102
퇴 장 : 146